

주린지 절

니시아마 산 기슭에 위치한 주린지 절은 자식 점지·순산을 기원하는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9 세기의 유명한 가인 아리하라노 나리히라(825~880 년)가 은거했습니다. 이르게 꽃이 피는 벚나무의 명소이기도 하며,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조용한 이 절에서는 두 곳의 정원, 『이세 이야기』의 장면을 묘사한 맹장지, 나리히라의 공양탑, 전통적인 소금 가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주린지 절은 850 년에 몬토쿠 천황(826~858 년)이 그의 비(妃)인 후지와라노 아키라케이코(829~900 년)의 순산을 기원하여 연명지장보살을 모신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천황의 기도가 이루어져 무사히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천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셔져 있는 보살상은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초(767~822 년)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쇼군의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진 오닌의 난(1467~1477 년)으로 교토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주린지 절도 소실되어, 간분 시대(1661~1673 년)에 귀족인 가사노인 가문에 의해 재건될 때까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가사노인 가문의 보리사(어느 가문 일족이 선조의 영혼을 애도하기 위한 사원)가 되어 장례와 묘의 관리, 사자(死者)에게 공양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리하라노 나리히라 만년의 은거지

나리히라는 헤이제이 천황과 간무 천황의 손자로서 황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반정 미수 사건에 관여해 어린 나리히라도 황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아리하라라는 성씨를 받았습니다. 평민 신분이었지만 나리히라는 궁정에서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여 뛰어난 조정 관리, 유능한 전사(戰士), 숙련된 기수(騎手), 그리고 재능이 넘치는 가인으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남자로도 알려져 있어서, 천황의 비와 이세 신궁의 사이쿠(무녀로서 봉사했던 미혼의 여자 황족)와의 사랑 이야기 등 많은 연애담은 와카(일본의 전통 정형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엮은 『이세 이야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리히라는 만년에 주린지 절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0 세기의 시가집 『고킨와카슈』에는 그의 마지막 와카를 포함한 많은 작품이 실렸으며, 6 인의 대표적인 가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야 할

길이라고 일찍이

들었건만

그날이 어제일지 오늘일지는

생각지도 못했노라

경내

본당은 1750년에 지어졌으며, 교토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활 모양으로 굽은 지붕의 형태는 봉련형(鳳輦形)이라고 하며, 옛날 궁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탔던 가마(봉련)의 지붕을 본떠 만들어 독특합니다. 본존인 연명지장보살상은 다른 몇몇 불상에 둘러싸인 작은 제단 안에 모셔져 있으며 연 1회, 8월 23일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주 제단 양쪽에는 나아가 2구의 불상이 있고, 본당 내에는 봉납된 많은 오시에(두꺼운 종이를 새, 꽃 등의 모양으로 오리고 수를 놓은 아름다운 천으로 감싸 판자 등에 붙인 공예품으로서 여기서는 신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작은 지장보살 오시에 등의 봉납품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당과 구리(승방과 부엌)는 지붕 달린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두 곳의 방에는 『이세 이야기』와 18세기 후반의 여행 안내 책자 『미야코메이 쇼즈에』 등 절의 보물과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맹장지에는 우아한 옷을 걸친 귀족과 음악가, 하인 등 『이세 이야기』의 한 장면을 묘사한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당과 구리 사이에는 제 27대 당주 가사노인 쓰네마사(1700~1771년)가 설계했다고 하는 중정이 있는데, 섰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 따라 조금씩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데서 ‘산포후칸노니와’(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정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원 중앙에 서 있는 수령 200년의 유명한 나리히라자쿠라 벚나무가 복도의 기와 지붕에 가지를 드리워 봄에는 벚꽃이 캐노피처럼 뒤덮여 그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정원 옆에는 쓰네마사가 선호했던 양식으로 지어진 다실이 있는데,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당 뒤편의 언덕길에서 독특한 양식의 본당 지붕과 나리히라자쿠라 벚나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덕길 도중에 서 있는 석탑은 나리히라의 묘라고 전해집니다. 뒷산의 지면을 크게 파낸 곳의 가운데에는 돌로 만든 소금 가마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나리히라가 주린지 절에 살았던 무렵에 사용했던 소금 가마를 재현한 것입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년)의 귀족은 바닷물을 소금이 될 때까지 끓여, 바다의 향기와 이미지를 즐겼고, 때로는 색소를 더해 연기에 색을 입혀 즐겼습니다. 매년 11월 23일에 열리는 시오가마기요메사이 축제에서는, 시오야키라고 하는 이 우아한 놀이가 재현됩니다.